[한국민족종교협의회 창립30주년사 발간 축사]

축 사

한국민족종교협의회의 창립 30주년을 맞아 민족종교의 발자취를 선명하게 담아내고, 미래의 청사진으로 희망을 전하는 30년사 발간을 깊은 마음으로 축하합니다.

민족종교는 이름 그대로 민족과 함께하며 자생적으로 태어난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점기를 지나며 근거도 없이 유사종교로 매도되며 숱한 어려움을 겪어오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시대마다의 굴곡에서도 민족종교는 보국안민(輔國安民)의 정신을 통해 민족의 주체성과 국권을 지키는데 앞장서왔습니다.

이는 선조들의 가치있는 희생을 소중히 여기어 마음깊이 기리고, 현시대의 삶에서 유익한 결실로 이어가겠다는 후대의 정성스런 노력이라 할 것입니다.

특히, 창립초기부터 준비위원장의 소임을 맡으시며 민족종교계를 화합으로 이끌고, 겨레얼 살리기 운동을 통한 민족의식 함양에 진력하신 한양원 회장님의 헌신적 노고가 가히 크다고 하겠습니다. 더불어 '민족의 종교'로서 당당히 역할을 다하며, 창립 30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은 모두 여러분의 공로와 덕행이라 할 것입니다.

한국민족종교는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와 '한국종교인평화회의'를 통해 이웃종교들과 함께 상호간의 교류와 이해를 통한 종교계 화합과 평화를 위해 진력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한국민족종교협의회가 있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왔듯이, 앞으로도 겨레가 의지할 기둥이 되어 구국제민(救國濟民)과 인류평화(人類平和)를 위해 힘써주셔서 보다 나은 사회를 이룩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59년(2015년) 월 일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대표의장 자 승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